

## 초대 특별시장 본경선 뿔 5명...28만 당심에 달렸다

민주 예비경선 19~20일 100% 권리당원 투표 진행  
광주·전남 조직력이 최대 변수...대이변 가능성도  
본경선 4월3~5일 '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이번 주 예비경선을 통해 6명에서 5명으로 압축된다.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 특성상, 후보들은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선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8·19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을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후보로 등록한 6명 가운데 5명으로 압축되며, 권리당원 100%의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다.

경선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2번 강기정 광주시장, 3번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4번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5번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6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다.

예비경선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광주 11만2000여명, 전남 17만명으로 모두 28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1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투표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시행되며 투표 링크는 당일 발송된다.

중앙당선관위는 6명의 후보들 가운데 최하위 1명을 가려내 20일 오후 7시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예비후보가 본경선에 안착하고, 나머지 후보 4명이 3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100%의 예비경선이 진행되는 만큼 조직력이 탄탄한 후보가 5인 본경선에 통과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권리당원 투표에 앞서 17~18일 열린 조별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와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통합특별시를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당심에 호소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예비경선에 양강 구도를 이룬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예비후보가 안정적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다만 권리당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은 4월 3~5일 '권리당원 50%, 시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는 기존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신 투표권이 없는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도입된다.

토론회는 추첨을 통해 △27일 전남 서부권 △28일 전남 동부권 △29일 광주권으로 정해졌다.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선 권역별로 30명의 정책배심원이 참여해 후보자 5명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패널 토론회와 정책배심원의 즉문즉답 방식의 질의를 병행한다. 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다만 정책배심원에게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4월 12~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8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B조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왼쪽부터) 신정훈·정준호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에너지 지산지소·20조 재정 활용 '정책대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B조 합동토론회  
신정훈·정준호 2인 구도에 비전 제시 초점  
SMR·20조 운용 방안 등 차별화 해법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B조 합동토론회에서는 초대 시장 자리를 노리는 두 후보가 특별시의 비전을 놓고 정책대결을 펼쳤다. 치열한 공방보다는 각 후보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에너지 전략과 재정 운용 방안을 놓고는 노선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광주MBC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B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호·신정훈 국회의원(기호순)이 참석했으며 공동질문과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A조와 마찬가지로 산업 전략과 20조원 재정 활용, 에너지 지산지소 해법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4명이 토론을 벌인 A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두 후보는 각자의 정책 방향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비교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냈다.

1호 공약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접근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신 후보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반값을 실현하겠다"며 "RE100 기반 기업 유치와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가 주권을 좌우하는 시대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일지리를 만들려면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며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등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세제 혜택으로는 기업을 끌어올 수 없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만들어야 대기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조원 규모 재정 운용 방안에서도 접근 방식에 차이가 보였다. 신 후보는 "민생, 균형발전, 미래 산업에 3분의 1씩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며 재정의 분산·균형 배분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20조가 아니라 30조로 불러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지산지소 전략을 두고도 두 후보는 해법을 달리했다.

정 후보는 "지산지소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해상풍력과 항만 인프라 확보, 에너지 믹스 통해 실질적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전남 청년, '일자리 부족'에 정착 외면

산업연구원 '지역 이동 보고서'...정착유보지로 분류  
'유출 구조' 고착화... '유입보다 안정적 체류 지원'을

광주·전남지역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기간 체류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유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 이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11.4%가 재이동을 선택했으며,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경유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이동의 흐름 자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한 비율은 42.7%로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그쳤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일수록 장기 거주 의향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산출해 지역별 정주 여건을 비교했다. 이 지수는 일자리(Work), 삶(Life), 문화·여가(Fun), 사회적 관계(Engagement)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일체적으로 평가한다. ▶2면에 계속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장 통합 기념 시·도민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방문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후원 시에도 인정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라노,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유계지역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